

이중섭미술관 신축... 문제는 사업비

서귀포시 350억 규모 미술관 확장사업 추진 국비 확보·사유지 매입 난항... "당위성 고심"

서귀포시가 이중섭미술관 신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막대한 사업비 확보 및 사유지 매입 문제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현재 이중섭미술관이 토지 중앙에 위치해 공간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시설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삼성이 유족의 작품 12점 기증을 계기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미술관을 헐고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2002년 11월 개관한 이중섭미술관은 전체부지 9100㎡에 지상 2층의 연면적 589.46㎡ 규모다. 1층은 상설전시실(121㎡), 수

장고(41㎡), 아트숍(53㎡), 사무실(36㎡)로 구성됐다. 2층은 기획전시실(74㎡)로 운영 중이며, 주차면 수는 39면이다.

시는 꾸준한 원화(59점) 확보와 관람객 증가로 개관 이래 시설 확충이 없어 전시·관람·수장능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관람객은 개장 초기 연간 2000~3000명에서 최근 매년 27만여명이 미술관을 찾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8000㎡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신축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주차면 수도 80대로 확대한다는 계산이다.

시는 사업비로 공사비 300억원, 설계비 15억원, 토지매입비 35억원

등을 책정했다. 특히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이중섭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공사비 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유지 14필지에 대한 토지주와의 보상협상 문제도 걸림돌이다. 여기에 정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앞으로 국비 확충에 따른 논리 개발 등 전략 수립도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4500만원을 확보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용역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중섭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 조성으로 서귀포시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도약, 문화적·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비 확보와 사유지 매입 노력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취나물 수확 한창 29일 무더운 날씨 속에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한 농경지에서 어르신들이 취나물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4·3 위원, 추가 진상조사 주역할 담당

여야, 위원 추천 협의 나서 위원회 내 분과위 구성·지휘

여야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 위원들은 앞으로 4·3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주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부터 양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위원 추천

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는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결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지난 2월 전면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이 포함돼야 한다.

전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의정회동에서 4·3 위원 구성을 위해 양당이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제주4·3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야의 제주4·3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정부는 추천 위원 명단을 오는 7월 16일까지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4·3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이들이 추천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이들은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추가진상조사를 총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코로나 위기 극복 도약 계기 마련 최선"

안동우 제주시장, 어제 취임 1주년 관련 기자간담회 제주시, 중앙 공모·평가 95개 선정 인센티브 658억 확보

안동우 시장이 오는 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응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2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시민과 '통(通)'하는 제주시장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취임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조로 임기 초부터 삶의 현장을 구석구석 찾아가 시민의 삶을 살뜰히 살피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시장은 이어 갈등예상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1건에 대해서는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공공갈등을 봉합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승강기 및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공사는 중앙로 인근 상인회 등과의 대화를 통해 지난 37년간의 갈등을 마무리한 소통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등봉·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해 나감과 동시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제주시는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비상대비 및 민방위활동 우수지자체 선정, 제52회 한국도서관상 수상 등 중앙단위 공모·평가에서 95개 사업이 선정돼 총 658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앞으로 더 나은 제주시로의 도약을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등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감염병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다양한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켜 치유와 회복을 통한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면서, 제주시민의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주



안동우 제주시장이 29일 제주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시장은 이날 내년 6월 실시되는 도지사선거 출마설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제주시정에 전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본예산 1조원 시대 개막... 국비 확충 노력"

김태엽 서귀포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강조 소통행정·웰니스관광·서귀포in정·뉴딜사업 매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귀포시의 새 희망과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29일 서귀포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시장은 "취임과 함께 4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화목한 현장행정의 날 운영 ▷1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쇼핑물 '서귀포in정' 운영 ▷지역의 자연·문화·역사를 가미한 체류형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청년 창업 및 거주 안정을 위한 스타트업타운 조성 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4개 분야 1182억원 규모의 서귀포형 뉴딜사업 발굴 등에도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새로운 지역의 미래를 바꿀 굵직한 현안과제로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 중문대포해안 우상절리대

경관 개선, 서귀포시민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등을 통한 지역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부문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의료 및 복지 인프라 강화에도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서귀포시 개칭 이래 최초로 본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고, 이 가운데 국비는 3432억원으로 전년보다 32.3% 늘었다"며 "내년도 국비 확충 목표로 올해에 걸췌 10% 증가한 3775억원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인 의료 취약지 민관 협력의 원 건립(대정읍),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 지원, 도내 최초 다수 사상자 이송용 응급버스 도입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정망 구축에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29일 서귀포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지역의 최대 현안인 강정마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국책사업으로 결정권이 없는 행정시장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의 역할은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백금탁기자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그랜드보청기

그랜드보청기 확장이전 파격할인!!
구매고객 20만원 상당 녹음 선착순 증정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청능사"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샵샷들 혼자 전화 주시면!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시장 (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검구이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간서끼 농업은 미생물 농법으로

가이아 바이오 토양 미생물제재 부스트 팜 ⇒ 탄생

사용방법

- 20ℓ(1말)을 100배(100말)희석 1,000평 관주
- 수돗물을 사용시는 하루 지나서 희석

사용효과

- 질병 예방(세균성, 곰팡이성)
- 토양 이끼 제거
- 당도 · 과중 증가, 저장성 증대
- 기형과 감소로 인한 수확량 증대
- 토양을 기름지고 숨쉬는 육토로 바꿈

사용시기

- 거름(퇴비)을 시비한 후 관주
- 영양 생장 · 비대기때 관주
- 엽면시비는 200배로 희석 사용

본 제품을 시제품으로 사용할 농가께서는 연락을 주십시오

010-2633-5349 부영인

공탱이 감글 유통상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시시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